

공시적 각도에서 고찰한 명량사 형성 기제*

金 嶸 敏**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명량사 형성기제
 - 2.1 기본가정
 - 2.2 명사와 양사의 범주공존상황
 - 2.3 명사에서 양사로의 의미획득 기제
3. 임시양사의 분류 및 특징
 - 3.1 임시양사의 분류
 - 3.2 임시양사의 통사·의미특징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현대중국어에서 개체 명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명사만을 수식하는 양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명사 중에는 양사로 차용되어 쓰이는 것들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a. 周正雖然覺得這一輛車和一車煤可惜，但事到如今，也顧不了那麼多，只好同意這樣做。

저우정은 이 차와 석탄 한 차가 아깝기는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 高麗大 中文科 講師

- b. 她從來沒有進過這一間屋子，一屋子的金屬光澤晃得睜不開眼睛。
그녀는 이제껏 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는데, 온 방 가득한 금속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 눈을 뜰 수 없었다.

(1a)의 ‘一輛車’에서 양사 ‘輛’은 명사 ‘車’의 수량단위로 쓰이고 있다. 한편, ‘一車煤’에서는 ‘車’가 후행하는 ‘煤’의 양사로 쓰이고 있다. (1b) 역시 ‘一間屋子’에서 양사 ‘間’이 명사 ‘屋子’의 수량단위로 쓰이고 있는 한편, ‘一屋子金屬光澤’에서는 ‘屋子’가 후행하는 ‘金屬光澤’의 양사로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명사로부터 차용되어 명량사¹⁾로 쓰이는 임시양사의 양사로의 차용 기제를 제시하고, 임시양사의 통사적 특징과 임시양사로 구성된 수량구가 나타내는 양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²⁾

2. 명량사 형성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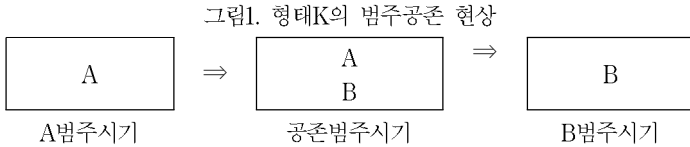
2.1 기본가정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한 형태의 범주가 다른 범주로 변하여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K라는 형태가 문법범주 A에서 문법범주 B로 변화하는 데는 통시적인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하나의 형태가 A, B의 두 문법범주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이는, 더 엄밀히 말하면 범주가 흔들리어 A로도 보이고 B로도 보이는 범주의 공존상태’를 유지하는 단계가 있다고 본다. 이 단계에서 한 형태를 범주 구분할 경우, 학자들의 분류 기준이나 직관에 따라 A나

1) 어법서에서 분류된 임시양사의 범위 및 명칭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朱德熙(1982/1998)의 양사 분류방법을 받아들여 ‘臨時量詞’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양사라 함은 명량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B로 달리 분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태 K가 A라는 범주에서 B라는 범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A, B 두 범주 모두에 넣기도 한다.³⁾



형태 K가 A라는 범주에서 B라는 범주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시성이 반영된 공시적 관점으로 본다면 K는 A, B 모두에 속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주변화는 꾸준한 통시적인 과정 속에서 완성되므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이상의 범주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가 두 범주 사이에 걸쳐 있다고 할지라도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에는 어느 한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

양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인 분류에 따르면 양사는 일반적으로 사물과 관련된 수량단위인 명량사와 동작과 관련된 수량단위인 동량사로 분류되고, 명량사는 다시 개체양사, 집체양사, 도량사, 부정양사, 임시양사, 준량사 등으로 분류된다.⁴⁾ 그러나 이러한 양사의 하위부류 및 개별 양사 가운데 이웃하고 있는 다른 품사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두 범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3) 이와 같이 하나의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전이될 때 두 개념이 공존하여 단일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eine(1993)은 이를 모호성 단계(Ambiguity Stage)라고 하였다. (이성하:2000 재인용)

4) 朱德熙(1982/1998)에 근거한 것이다. 朱德熙(1982/1998)는 동량사에 대해서는 전용동량사, 차용동량사, 동사를 중복한 경우의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2.2 명사와 양사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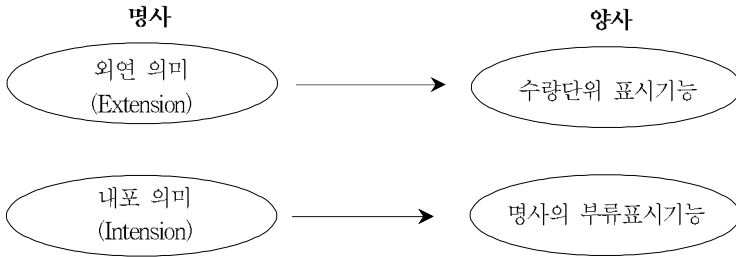
명사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세계의 사물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어휘이다. 명사는 의미적으로는 세계의 사물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 의미적으로 볼 때 명사는 외연적인 의미와 내포적인 의미를 지닌다. 외연적인 의미는 명사가 지시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가리키고 내포적인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명사의 가장 주요한 의미적 기능은 개체 지시성이다.

한편, 양사는 사물 혹은 동작의 수량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로,⁵⁾ 양사의 가장 대표적인 문법기능은 수량단위 표시이다. 한편, 양사는 대부분 명사나 동사 등 다른 품사로부터 전환되어 온 것이어서 양사로 쓰이면서도 원래 품사의 어휘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어 의미적으로 보면 명사에 대한 부류를 지시하는 기능을 겸하고 있다.⁶⁾ 양사가 수사와 결합해야 한다는 통사적인 제약은 양사는 수량단위 표시 기능이 필수적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실사에 속하는 양사는 대부분 어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대한 부류를 표시 기능 역시 필수적이다.

임의의 형태 K가 명사와 양사 두 범주로 모두 쓰이는 경우 명사 범주에서 갖는 외연의미는 양사 범주에서 수량단위 표시기능을 실현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명사 범주에서 갖는 내포의미는 양사범주에서는 명사의 부류 표시기능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관계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表示事物或動作的數量單位的詞 《暫擬漢語教學語法系統簡述》(1956), 何杰(2001)에서 재인용.
6) 不少個體量詞與相應的名詞在意義上有某種連繫, 如“條”一般用於長條形狀的物體, “張”一般用於能展開的物體, “顆”、“粒”用於小而圓的東西, 而“個”使用範圍最廣, 可以用於很多個體名詞前。(劉月華:1996/2002)

그림2 명사의미와 양사의 기능간의 상관관계



2.3 명사의 양사로의 의미획득 기제

명사가 양사로 차용되어 쓰이는 현상의 본질은 한 사물을 빌어 다른 사물의 양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반 명사가 양사로 차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양사로 차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사는 대부분 명사(일부의 동사)로부터 차용되어 왔는데, 이것은 어휘적인 의미에서 기능적인 의미로 변화·발전하는 언어의 일반적인 방향과도 일치한다. 일반명사가 양사로 차용되어 쓰일 경우 반드시 수사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따르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단위 표시 기능이 부각된다. 그 의미 변화의 양상과 폭은 개별 단어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기제는

(2) 어휘의미에 기능적인 의미인 [+단위성]이 부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위성은 기본적으로 [+경계성]⁷⁾을 지닌 명사에서 보여지는 속성이다. [+경계성]은 [+가시성]과 [+부분성]에 의해 포착된다. 즉,

7)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구분지어질 수 있거나 한 대상 내에서 어떤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분지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리킨다.

(3) 수량표현의 단위성은 [+경계성]을 가진 명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명사에서 양사로의 차용은 용기류 명사에서 널리 보여진다. 이것은 용기에 담긴 내용물은 용기로써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내부’, ‘외부’,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성의 ‘용기’는 그 내부 공간에 구체적인 사물 및 셀 수 없는 물질 등을 담아 [+경계성]을 부여 받는다. [+경계성]을 띤 용기는 [+단위성]과 [+부분성]의 자질을 띠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경계가 있거나 경계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물리공간은 모두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용기 개념을 더욱 추상적인 영역에 사상시켜 보면, 신체기관 및 특정 장소도 용기가 될 수 있다.⁸⁾ 이들 역시 추상적인 ‘내부’, ‘외부’, ‘경계’로 구성되어 셀 수 없는 물질 및 사물의 ‘性狀’ 등을 추상적인 용기 내부에 담아냄으로써 외부와 경계지어 개체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통해 명사가 양사로 차용되는 과정은 통사적으로는 구체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수사와의 결합을 통해 [+단위성]이라는 기능적인 의미를 획득하여 양사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미적으로 명사는 개체 지시성을 상실하고 부류 지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8) 최경봉(1996)은 공간물과 개체물의 구분은 속성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 인간이 가진 개념적 구분을 대상의 분류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얼굴, 몸, 가슴, 배, 손, 발 등 신체기관을 나타내는 부류들이 한 개체물에 속해 있는 부분으로, 전체에 대해 부위를 가리키는 [+부분성]을 띠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간성]을 띤 공간물이라고 보아, 양사로 차용할 수 있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신체기관을 나타내는 명사가 양사로 차용되지는 않는다. 양사로 차용되는 신체기관은 대부분 신체의 외부기관이며 ‘胃’, ‘肺’, ‘腸’등과 같은 신체 내장기관을 나타내는 명사는 차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어에서 쓰이지 않는 문언적인 표현도 양사로 차용되지 않는다.

一頭汗 → *一頭顛汗

碰一臉灰 → *碰一面灰

그림3. 명사에서 양사로의 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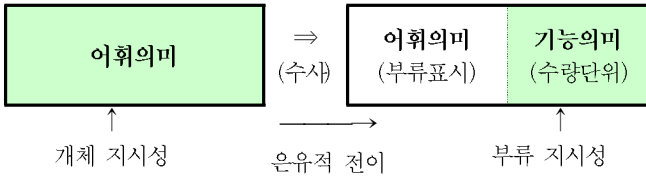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어휘의미를 나타내던 명사가 수사와의 공기라는 통사적 환경 하에서 어휘의미 외에 수량단위 표시라는 기능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명사는 ‘개체지시성’을 상실하고 ‘부류지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은유적 전이(metaphorical transfer)를 통한 인식적 전이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은유적 전이란 구체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인지적 전략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가 은유적 전이를 통해 그러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지시하게 되며, 그 공간에 담길 수 있는 대상의 부류를 표시하는 기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은유는 지시대상의 범주가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범주와 범주 간에 모든 것이 다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부분들은 생략되고 그 중의 중요한 것만이 전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유적 전이를 통해 의미확장, 의미전이가 이루어진다.

3. 임시양사의 분류 및 특징

본 절에서는 명사로부터 차용된 임시양사를 재분류하고 이에 대한 통사 및 의미특징을 통해 2장에서 명사로부터 차용된 임시양사가 명사와 양사 사이에 존재하는 공존범주이며, 특히 임시양사 내부 구성원 간에도 원형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지난 신체기관이 은유적 추상화를 거쳐 인지적으로 경계지어진 ‘용기’로서 차용된 부류로, 수사의 선택 능력이 장소류보다 더 떨어져 ‘一’ 이외의 다른 수사의 수식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수사와의 결합이 필수적인 양사가 수사 선택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임시양사 내부 구성원 간의 양사 자격 정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사선택 능력에 근거하여, (4a)의 일반용기류와 (4b)의 탑재류를 한 부류로, (4c)의 장소류와 (4d)의 신체류를 다른 한 부류로 분류해 낼 수 있다.

(5) 임시양사의 하위 부류⁹⁾

A류: 일반용기류, 탑재류 - 杯, 盤, 碗, 盆, 籃, 瓶, 桶, 車, 口袋

B류: 장소류, 신체류 - 院子, 地, 桌, 身, 頭, 臉, 手, 肚子, 腔

3.2 임시양사의 통사적 특징

3.2.1 수사와 양사간의 상호 제약

임의의 수사와 결합이 가능한 전용양사류로 구성된 ‘수사+양사+명사’구조에서 명사는 수량구의 수식을 받아 개체화되며, 수량구는 명사의 부분량을 나타낸다. 가령, ‘兩件衣服’에서 ‘衣服’는 수량구인 ‘兩件’을 통해 개체화되며, ‘兩件’은 ‘衣服’의 구체적인 양, 즉 부분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양사가 수사와의 결합능력에 있어 제약이 있다는 것은 수량표시 기능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며, 결국은 전용양사류와 같이 부분량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A류와 B류는 모두 명사에서 차용되어 왔지만, A류와 B류가 받는 통사적인 제약의 정도는 상이하다. A류는 수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운

9) A류 내 탑재류 가운데에 주로 ‘一’와 결합하는 구성원이 있고, B류 가운데 장소류에 속하지만 때로는 ‘一’ 이외의 수사와 결합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는데, 이들은 범주 내 주변적인 구성원으로, A류와 B류의 사이에서 과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A류와 B류가 연속변차선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B류는 수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이어서 ‘수사+양사+명사’구조에서 수사는 ‘一’로 제한되며 다른 수사로 대체할 수 없다.¹⁰⁾ 상하 맥락이 주어지는 경우 A류로 구성된 ‘수사+양사+명사’구조에서 명사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B류의 경우에는 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6) A류: 一籃蘋果 / 兩籃蘋果 / 三籃蘋果	→ 兩籃
사과 한/ 두/ 세 바구니	두 바구니
一桶水 / 兩桶水 / 三桶水	→ 三桶
물 한/ 두/ 세 통	세 통
B류: 一地水 / *兩地水 / *三地水	→ *三地
온 바닥의 물	
一頭白發 / *兩頭白發 / *三頭白發	→ *三頭發
백발 성성한 머리	

A류와 B류가 수사 선택 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A류와 B류 양사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A류는 대체적으로 명사를 담는 ‘용기’로서 수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쓰여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며, A류로 구성된 수량구는 전용 양사류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부분량을 표시한다. 반면 B류는 명사가 존재하는 ‘특정 범위의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B류로 구성된 ‘一+양사’는 구체적인 수량이 아니라 ‘양사 전체에 명사가 분포되어 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명사의 부분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위 내에 명사가 ‘수직으로 많이’ 혹은 ‘정도가 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전체량을 나타낸다.

(7) a. 他連夜裝上兩車蘋果, 運往廣州。

그는 밤새도록 사과를 두 대 실어 광저우로 운송하였다.

b. 他扭著頭喝水, 然後把礦水瓶猛地一擲, 濺了一地水。

그는 고개를 틀어 물을 마시고 나서 생수병을 갑자기 세게 집어 던져, 온 바닥 가득 물이 튀었다.

위의 예문(7a)에서 수량구인 ‘兩車’는 ‘蘋果’의 부분량, 즉 구체적인 양을 나

10) 가령 ‘兩手泥’와 같이 쌍을 이루는 사물은 ‘一’이외의 수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타내고 있다. 그러나, (7b)의 ‘一地’는 ‘水’의 구체적인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특정 범위 전체에 물이 많음을 강조하여 전체량을 나타내고 있다.

B류의 경우 ‘一’를 포함한 수량구가 빈어의 위치에 오더라도 ‘一’를 생략할 수 없다. 위의 예문 (7b)에서 ‘一地水’는 빈어로 쓰이고 있지만, 수사 ‘一’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7b) *他扭著頭喝水, 然後把礦泉水瓶猛地一擲, 濺了地水。

또한, B류로 이루어진 수량구에서 ‘一’를 ‘滿’이나 ‘全’으로 바꿔 써도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

- (8) a. 一身冷汗 → 滿身冷汗 → 全身冷汗
 온 몸의 식은땀(식은땀으로 흥건한 몸)
 b. 一地水 → 滿地水 → *全地水 11)
 온 바닥 가득한 물

3.2.2 ‘的’삽입 가능 여부

통사적으로 수사와 양사로 구성된 수량구와 ‘的’는 상호배척의 성격을 띤다. 그란 때로는 이 두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的’의 삽입 가능여부는 양사 자체의 특성이외에¹²⁾ 수사와 양사, 양사와 명사간의 의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명사와의 의미관계가 밀접하면 양사와 명사 사이에 ‘的’를 삽입할 수 없는 반면, 수사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수량을 헤아리는 기능이 위주가

11) 袁毓林(2004)에 따르면, ‘滿’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용기 은유(container metaphor)를 기초로 하고, ‘全’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전체-부분 은유(set metaphor)를 기초로 한다. 즉, 양사가 내부에 대상을 담아낼 수 있는 용기로서 인식된다면 ‘滿’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양사가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로 인식된다면 ‘全’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7a)의 ‘身’의 경우는 추상적인 용기로 인식될 수도 있고, 신체 각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로도 인식될 수 있어 ‘滿’과 ‘全’의 수식이 가능하지만, (7b)의 ‘地’는 단지 용기로서만 인식될 수 있을 뿐,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로는 인식되지 못해 ‘滿’의 수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 ‘全’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다.

12) 가령, ‘一斤的蘋果’, ‘一籃子的蘋果’, ‘一碗的飯’등과 같이 일부 도량형양사 및 임시양사의 경우 양사와 명사 사이에 ‘的’를 삽입할 수 있다.

되면 ‘的’를 삽입할 수 있다. 즉, 수사+양사+的+명사 구조는 주로 화자가 판단하기에 명사의 ‘수량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명사의 일체성을 나타낸다.

A류로 구성된 ‘수사+양사+명사’는 명사의 구체량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수량구와 명사 사이에 ‘的’를 삽입하지 않는다.

- (9) a. 他喝了兩杯果汁。 → b.*他喝了兩杯的果汁。
그는 주스 두 잔을 마셨다.

예문(9)에서와 같이 A류 양사로 구성된 수량구와 명사 사이에는 ‘的’를 삽입할 수 없다.¹³⁾

반면, B류로 구성된 ‘수사+양사+명사’구조에서 수사가 ‘一’인 경우 ‘的’를 삽입할 수 있으며, ‘的’가 삽입된 후에도 기본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 (10) a. 他長了一頭白髮。 → b.他長了一頭的白髮。
그는 온 머리 가득 백발이 자랐다.

B류 양사로 구성된 예문(10b)와 같이 수량구인 ‘一頭와 명사인 ‘白髮’ 사이에는 ‘的’를 삽입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的’가 삽입된 후에는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수량 혹은 정도가 화자의 예상보다 더 많거나 심각하다는 의미가 부가된다. 즉, ‘他長了一頭的白髮’라고 하는 경우 ‘그의 흰머리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뜻밖에도 온 머리 가득 백발이 성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3) 수사가 ‘一’이고 화자가 ‘수량이 많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 ‘的’를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的’를 삽입한 후에 수량구는 구체적인 확정량을 나타내지 못하며, 단지 ‘수량이 많다’는 것을 과장하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가령, ‘一碗飯’은 ‘兩碗飯’, ‘三碗飯’ 등에 상대한 개념으로 밥이 담겨진 그릇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반면, ‘一碗的飯’은 밥이 담겨진 그릇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밥이 한 그릇 가득 있다’는 과장된 의미를 나타낸다.

3.2.3 임시양사의 중첩

양사는 단독으로 주어 혹은 빈어 등의 문장성분이 될 수 없지만, 중첩이 된 후에는 수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문법적 의미는 ‘개체화된 사물의 중복존재’로, 이에 근거하여 ‘周遍’, ‘多’, ‘依次(連綿)’등 의미를 나타낸다.

(11) 這五千黃臉鬼個個抽大烟。

이 오천 명의 누런 얼굴의 동양놈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아편쟁이들이다.

(12) 設施已化爲灰燼，縷縷餘烟昇起，發出刺鼻的氣味。

설비들은 이미 잿더미가 되었고, 한 가닥 한 가닥 남은 연기가 피어올라 코를 자극하는 냄새를 발산하였다.

(13) 抽水馬桶座上的棕漆片片剝落，漏出木底。

수세식변기 좌석에 있는 갈색 칠이 한 조각 한 조각씩 벗겨 떨어져, 나무가 드러났다.

예(11)(12)(13)의 ‘個個’, ‘縷縷’, ‘片片’등의 양사중첩 형식은 각각 주술술어문의 주어, 주어의 관형어,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며, ‘個個’는 앞에서 언급된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周遍’의 의미를 나타내고, ‘縷縷’는 수식하는 명사의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며, ‘片片’은 동작의 방식이 순서대로 계속됨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양사가 중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첩이 되기 위해서 양사는 1음절이어야 할 뿐 아니라 수사와의 결합이 자유로워야 한다.¹⁴⁾ 1음절 전용양사류 중에서도 은유를 통해 ‘인식적 부류화’의 성격을 갖게 된 경우, 양사자체의 문언적 색채가 짙거나 명사성이 강한 경우, 내부에 이미 수량적인 자질을 포함

14) 石毓智(2001) 어휘의 수량자질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첩의 문법적 의미를 ‘고정량화(定量化)’라고 보았다. ‘고정량화’란 단어가 문법수단을 통해 개념에 대해 수량자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양사의 고정량-비고정량을 판별하는 형태적인 기준은 수사와의 자유로운 결합 여부로 보았다. 즉, 자유롭게 수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양사 자체가 고정적인 수량자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반대로 수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양사의 어휘의미 자체에 수량자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수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이어서 중첩이 불가능하다.¹⁵⁾

임시양사 A류, B류의 경우를 살펴보면, A류 양사는 2음절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첩이 가능하다.

(14) 現在每天有4趟客車發往英國，每車60人，車車爆滿。

현재 매일 하루에 네 차례씩 버스가 영국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각 차의 정원은 60명이며 차마다 만원사례이다.

(15) 喝酒時，米局長擺出巾幗不讓鬚眉的架勢，杯杯見底。

술 마실 때,米국장은 여자라도 남자에게 질 수 없다는 기세로 잔마다 한숨에 다 마신다.

(14)의 ‘車車’는 주어로 쓰여 앞에서 언급된 매일 운행되는 버스 전체를, (15)의 ‘杯杯’는 미국장이 마신 모든 술잔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B류는 수사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결합할 수 있는 수사도 ‘一’로 제한되어 있어 중첩이 불가능하다.

(16) 他的母親有一副年輕的眉眼而戴了一頭白髮。

그의 어머니는 용모는 젊어 보이지만, 머리는 온통 백발이다.

(16)에 쓰인 B류 양사 ‘頭’는 1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頭頭白發 / 一頭頭白發’와 같이 중첩하여 쓸 수 없다. 이것은 B류로 구성된 ‘一+양사+명사’구조가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위 내에 명사가 ‘수적으로 많이’ 혹은 ‘정도가 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전체량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15) 이러한 양사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一線生機 → *線線生機	一絲希望 → *絲絲希望	一派胡言 → *派派胡言
一片新氣象 → *片片新氣象	一把年記 → *把把年記	一宗心事 → *宗宗心事
一幫小朋友 → *幫幫小朋友	一抹晚霞 → *抹抹晚霞	兩碼事 → *碼碼事
一灣河水 → *灣灣河水	一方手帕 → *方方手帕	一管筆 → *管管筆
(別有)一番新天地 → *番番新天地	(打了)一記耳光 → *記記耳光	

표1. 입시양사 A류와 B류의 성격비교

	A류	B류
‘一’의 문법적 의미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며, 입의의 수사로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다. 一杯水 ~ 兩杯水	‘滿’, ‘全’의 의미를 나타내며, 생략할 수 없다. 一身汗 ~ *兩身汗
‘一’ 및 명사의 생략 여부	문맥에 따라 ‘一’ 및 명사 생략 가능 喝一杯水 → 喝杯水 → 喝一杯	불가능하다. 出了一身汗 → *出了身汗 → 出了一身
‘的’삽입 가능여부	삽입 불가능	삽입 가능, 수량이 많음을 강조함
중첩가능 여부	가능 一杯水 → 杯水水 → 一杯杯水	불가능 一身汗 → *身身汗 → *一身身汗
수량구의 기능	수량 면에서 명사를 제한.	정도/범위 면에서 명사를 제한.
수량구의 양의 성격	부분량, 확정량	전체량, 모호량

4. 나오는 말

한 어휘의 범주변화는 지속적인 통시적인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므로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둘 이상의 범주가 동시에 공존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명사가 양사로 차용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시적인 각도에서 양사 형성 기제를 제시하였다. 수사와 공기해야 한다는 통시적인 환경 하에서 명사는 ‘단위표시기능’을 부여받는다. 또한 은유전을 통해 명사는 ‘개체 지시성’을 상실하고 ‘부류 지시성’을 획득하게 된다.

명사가 양사로 차용되는 현상은 주로 용기류 명사에서 보여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A, B 두 부류로 분류하고 그 통사·의미적인 특징 고찰을 통해 A, B 두 부류가 명사에서 양사로 범주가 변화해 가는 범주공존 단계이지만, 내부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양사로서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G.Lakoff,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서울 : 한국문화사, 1995.
- Lyons, J, *Semantics 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김종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 박이정, 2002.
- 우형식,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서울 : 박이정, 2001.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 한국출판사, 2000.
- 최경봉, 『국어 명사의 의미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6.
- 최정례, 『국어 명사의 단위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9.
- 丁聲樹 等, 『現代漢語語法講話』, 商務印書館, 1963, 1999.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2001.
- 郭繼懋, 「再談量詞重疊型式的語法意義」, 『漢語學習』 4期, 1999.
- 郭 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2002.
- 郭紹虞, 『漢語語法修辭新探, 上·下』, 商務印書館, 1979.
- 郭先珍, 『現代漢語量詞用法詞典』, 語文出版社, 2002.
- 何 杰, 『現代漢語量詞研究』, 民族出版社, 2001.
- 胡 附, 『數詞和量詞』, 上海教育出版社, 1957/1984.
- 李宇明, 『漢語量範疇研究』, 華中師範大學出版社, 2000.
- 劉月華 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1996/2002.
-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2000
-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1999.
-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1.
- 譚景春, 「從臨時量詞看詞類的轉變與詞性標注」, 『中國語文』 第4期, 2001.
- 王 力, 『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1987, 2000.
- 王祥榮·朱万喜, 「變換分析對V+量N結構的分化」. 『芙湖職業技術學院學報』 第4期, 2000.
- 叶 南, 「漢語名詞的“數”與重疊量詞」, 『西南民族學院學報』 第5期, 1996.
- 殷志平, 「關於‘一身冷汗’一類短語的性質和特點」, 『漢語學習』 第4期, 2000.
- 袁毓林, 「容器隱喻、套件隱喻及相關的語法現象」, 『中國語文』 第3期, 2004.
- 趙元任 著, 丁邦新 譯, 『中國話的文法』,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68/2002.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1998.

<中文提要>

一個詞匯的範疇變化是通過長時間的歷時過程完成的，而從共時角度考察，可以發現詞匯共屬於兩個範疇的階段。本文主要考察名詞借用爲量詞的現象，從共時角度提出量詞形成機制：與數詞共現的句法環境賦予名詞表示單位的功能，通過隱喻遷移使名詞喪失“個體指示性”，獲得“部類指示性”。名詞借用爲量詞的現象主要出現在容器類名詞，我們把它的分成甲類和乙類，並考察其句法特點，得出甲類和乙類做量詞的能力有所不同。

關鍵詞：範疇共存現象，表示數量單位功能，名詞部類化功能，量詞借用機制，臨時量詞